

더욱, 포획한 입자의 현미경검사서 동물플랑크톤과 다른 해양유기물에 의해 방사성핵종이 운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입자가 방사능낙진을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운반했는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탈리아의 라스페차 연안에서도 沈澱物捕獲測定이 사고후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해면하 250m까지의 깊이에서 도처의 입자 속에 체르노빌사고에 의한 방사성핵종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다만 500m의 海底沈澱物속에서

는 방사능낙진이 검출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 深海中에서의 오염입자의 아래 쪽으로의 이동 및 海洋底沈澱物형성은 상당히 천천히 진행된다는 증거라고 해설하고 있다.

1987년초 콜시카島연안에서 실시된 같은 실험에서는 체르노빌사고의 방사능낙진은 방사성핵종중 세슘 137만이 200m아래에서 그 이전에 검출된 것보다 훨씬 깊은 水深의 입자 속에서 검출되고 있다.

대 만

安全性是非로 後續機入札 延期될 듯

臺灣電力(Taipower) 關係者들은 自社の 한 엔지니어와 與黨인 國民黨(KMT)所屬의 한 有力한 國會議員이 지난 3년간의 臺灣電力의 原電事故들이 公衆과 同社の 從業員들을 危殆롭게 하였다고 非難한데 대해 이를 反駁하였다. 그러나 이 會社の 幹部들은 이러한 反論들이 原電建設計劃을 금년내에 確定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憂慮하고 있다. 臺灣電力은 今年後半期中에 그동안 오래 遲延돼온 2기의 950MW 유닛 7,8號機의 設備供給契約 入札을 實施할수 있도록 政府承認을 얻기를 希望해왔다.

3월초 國會에서 國民黨所屬 議員인 Chao Shao-Kang씨는 臺北市 北쪽의 Chinshan-1 原電의 放射能漏泄로 몇번 臺北市民들에게 威脅을 준 일이 있었다는 情報를 入手했다고 말했다. 그는 燃料棒破損에서 起因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事故들을 隱蔽했다고 臺灣電力과 國家規制機關인 原子力委員會를 攻駁하였다. 그 후에 Chao議員은 당초의 攻駁에서 물러섰으나 아직도 公衆의 安全과 從業員들의 健康에 대한 會社側의 業務怠慢을 非難하고 있다.

또다른 攻駁은 同社の 엔지니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는 設備改善作業의 一環으로 復水器 튜브를 銅管에서 티타늄合金管으로 交替한 후에 除去된 銅管을 除染하는 過程에서 過被曝되었다고 主張했다. 그를 診察한 醫師는 「慢性炎症으로 인한 心囊腫」이라고 診斷을 내렸으나 이러한 症勢의 直接的인 원인이 作業에 있었다고 하는 그의 主張을 再確認하기를 回避했다.

이러한 批判에 應答하는 過程에서 臺灣電力은 1985년에 일어난 Chinshan-1 플랜트에서의 두번의 事故에서 열사람의 從業員이 汚染됐었다는 事實을 처음 發表하여 이 뉴스는 新聞에 大書特筆됐었다.

그 후 이에 대한 解明書에서 臺灣電力은 다음 事項들을 強調했다.

- 어떠한 漏泄도 發電所밖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局部的인 低準位放射能 大氣放出事故는 原子力플랜트에서는 正常的인 것으로 돼있으며 Chinshan플랜트의 경우에도 이것이 汚染된 10명의 從業員들에게조차 그들의 健康에 深刻한

威脅이 되지 않았었다.

—燃料棒의 경우에도 設計制限値内の Pinhole가 發生한 것 외에는 아무런 問題가 없었다.

—處分前に 事前除染된 銅 튜브는 放射性이 낮았으며 除染過程에서 發生한 모든 먼지는 高性能 필터에 吸收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會社側의 解明은 一般國民들의 批判에 대해 満足스러운 回答을 주거나 또는 最近 몇년간 臺灣에서 일고 있는 原子力安全性에 대한 一般國民들의 疑懼心을 解消시키기에는 너무 技術的인 면에 치우쳤는지도 모른다.

臺灣電力, 4號原電 建設 無期延期

3월23자 “차이나 포스트”紙는 原子力安全性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마침내 臺灣電力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4번째 原子力發電所의 建設計劃을 延期시키도록 강요했으며 이에 따라 臺灣電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建設을 시작할 것이라고 3월 23일 로이터통신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국영기업체인 대만전력의 陳사장은 3월 22일 記者會見席上에서 臺灣電力은 앞으로 2000년 까지의 電力需要를 충족하기 위해 14~19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建設할 것이라고 밝혔다.

陳사장은 이어서 “반핵감정이 너무 고조되어 4號原電의 建設계획을 연기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蘇聯의 체르노빌事故가 발단이 되어 국회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臺灣電力은 1986년에 동해안에서의 4號原電 建設부지공사를 중단했었다.

이 反核運動은 臺灣電力이 그 산하의 한 원전에서 몇 년전에 배관의 放射能漏出로 從事員들이 被爆된 事故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후 며칠 안되어 再燃되었다.

한편 臺灣의 중앙통신은 臺灣電力이 그傘下の 3個原電에서 관리소홀로 3월초에 放射能漏出事故와 핵연료펠렛 및 이에 대한 관계서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했음을 3월 22일 처음으로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臺灣電力의 陳사장은 3월 22일의 기자회견에서 臺灣電力은 지난 날의 過誤를 교훈삼아 發電所 운영상태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臺灣電力의 통계를 들어 1984년 이후 1號原電에서 117회 2號原電에서 51회, 3號原電에서 106회의 放射能漏出事故가 발생했었으나 이러한 사고로 發電所 외부주민들에게 保健上的 危害를 끼친 일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臺灣電力은 Pinptung 및 Taipei의 3個原電 인근주민들을 위해 電氣料金を 할인해주겠다는 건의안을 재무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號原電의 Sung소장 말에 의하면 이 전기요금할인안은 發電所隣近住民들에 대해 매세대당 월 100KWH한도 내에서 電力을 無償供給하는 것이라고 한다.

日本

運轉維持費, 4년동안에 2배로

電力需要의 低迷에 의한 원자력발전 개발속도의 鈍化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建設비의 감소

가 예측되었지만, 결과는 3基의 신규착공에 의한 토지조성비 등의 지출증가와 기기 및 설비